

하나님의 말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7862 묶인 자는 자유롭게 되어 한다.....	4
원죄 - 예수의 구속 사역의 이유.....	6
8459 원래의 영과 타락에 관한 설명.....	6
8303 구속사역과 구속사역의 영적인 이유.....	7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해결하는 일.....	10
2316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큰 죄를 깨달았다.....	10
7237 그리스도의 탄생.....	11
7238 그리스도의 탄생.....	12
7992 인간 예수의 자유의지.....	14
8349 예수의 피를 통해 죄짐을 해결.....	15
스스로 받는 구원은 없다 -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다.....	18
2929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없이 죄를 속죄하는 일.....	18
6860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유가 없다.....	19
7950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20
저세상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	23
6850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문을 열었다.....	23
515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깊은 곳으로부터 혼의 구원. 저 세상.....	24
6205 깊은 곳의 존재를 구원하는 일에 사람들이 주는 도움.....	25
6423 구속을 받은 혼들의 축복과 감사.....	26
구원을 향한 인간의 과정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고 믿는 일 - 은혜를 활용하는 일.....	28
0466 구속 사역... 구속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	28
6670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은혜를 활용하는 일.....	29
6672 구속 역사의 은혜를 활용하라.....	30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일.....	32
3335 죄의 짐. 용서.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32
7442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33
구원받으려는 의지.....	35
1611a 구원에 필수적인 자유의지. (스스로 구원).....	35
1611b 은혜의 수단. 기도와 사랑행함.....	36
3280 죄를 깨닫는 일. 의지의 행동.....	36

7218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38
사랑으로 섬기는 일.....	40
2084 사랑의 섬김을 통한 구원. 묶임은 받은 상태와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	40
3165 사랑 없이는 구원이 없다. 생명의 힘.....	41
5203 불쌍한 혼들을 위한 도움. 사랑이 구속한다.....	42
순종하려는 의지.....	44
1571 자기를 구원하는 일. 사랑. 의지를 포기하는 일.....	44
2841 의지를 드리는 일이 유일한 요구 사항이다.....	44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46
7489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46
8063 영적인 구함: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	47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지의 강화와 힘의 공급.....	49
2779 인간의 연약해진 의지. 구속역사의 중요성.....	49
7762 예수를 통한 의지의 강화와 능력의 제공.....	50
1434 “세상은 모든 죄에서 구속될 것이다.”.....	51
1834 예수님을 따르라.....	53
7852 구속사역의 영적인 이유를 아는 지식.....	54

묶인 자는 자유롭게 되어 한다.

B.D. No. 7862

1961년 4월 1일

너희는 위로부터 온 내 사랑의 비추임에 너희 심장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고귀한 영적인 내용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열린 심장에 부어 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의 흐름은 내 말씀으로 너희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신적인 진리가 너희에게 선물 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한때 너희에게 말해 준 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빛이 충만한 것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얼마나 내가 이런 내 말이 이해 받기 원하는지 알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내 대적자의 묶임 아래 있다.

왜냐면 너희는 자유의지로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를 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자유롭게 못하고 그의 묶임을 받은 피조물이다. 너희가 다시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그보다 더 강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적자의 권세를 꺾은 자신의 피를 통해 너희 사람들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한 한 분이 너희를 구속해야만 한다.

이런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슬을 풀어주었다. 이 한 분이 묶임을 받은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다시 주기 위해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이래, 대적자는 이 한 분에게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속은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없다.

왜냐면 내 능력과 사랑으로 생성된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스스로 자신의 감옥의 수장으로 부터 구속되길 갈망할지 그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할지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내 제자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부여할 때 내가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을 주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내 구속사역을 전파 하라는 사명을 주었다.

이로써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유를 다시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했다. 나 자신이 내 제자들에게 내 구원계획을 알려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묶임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내가 그들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산다는 것을 설명했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행하게 위임하고 그들이 그들 편해서 이웃들이 묶임의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그들이 내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왜냐면 제자들은 나 대신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단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마지막 목표를 가지고 단지 짧은 시간 동안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내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는 사람은 내 제자들을 통해 의지의 변화 이뤘고 그의 나에게 귀환은 이제 보장이 받았다. 그는 이 땅에서 올바른 길을 갔다. 이 길은 이제 영원을 위해 결정적이었다. 만약에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으면, 너희가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이 땅의 길을 가면,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아직 묶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묶임을 받았다는 것과 누가 너희를 묶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다시 너희를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지 알아야만 한다. 이를 아는 지식은 내 올바른 일꾼이 너희에게 전하는 내 말을 통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내 일꾼은 자신이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에게 진리의 합당한 지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이런 일꾼들에 준 사명은 항상 사람들에게 내 의지를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꾼과 종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자유로 인도하는 길을 자신에게 가르치게 허용한다. 왜냐면 내 종들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그들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의 사슬을 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적자의 권세를 꺾었기 때문이다. 그 만이 구속한다. 그 만이 자유롭게 한다. 그가 나를 섬기는 종과 대리자들이 이 땅에서 전파해야 할 분이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일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나를 섬기는 일을 통해 자유를 향한 길을 가려고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원래의 영과 타락에 관한 설명.

B.D. No. 8459

1963년 4월 5일

중 말 전의 마지막 때에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지 너희를 내가 전적으로 돌보고 있다. 왜냐
오 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발견하게 해주는 많은 오류를 수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류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너희 손에 쥐어 줄 것이다. 위로부터 내 말을 전해 주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수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혼란 된 생각 가운데 있는 지를 안다. 나는 그들이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러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관점이 자신 안에 굳게 자리 잡은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나는 모두에게 빛을 전하기 원한다. 나는 나로부터 진리를 전하려는 사명을 받은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 주기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단지 너희가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왔고 너희가 나에게 저항함으로써 너희에게 정해진 바에 따르지 않았다는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능력으로 발산시킨 존재들은 자신을 의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었다. 그러므로 죽은 작품이 아니고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그들의 원래의 성분인 내 능력은 항상 일을 하려고 하는 생명력이고 생명력으로 남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능력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체를 가진 존재에게 부여했다. 왜냐면 그들은 서로 간에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피조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발산되어 나온 각각의 존재들은 각자가 한 존재였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발산되었고 계속하여 내 사랑의 힘의 제공을 받았다. 존재들은 나 자신의 형상이 이었고 자율적으로 능력과 빛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있는 내 고유의 존재의 축소물이었다. 왜냐면 나로부터 단지 온전한 것 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나를 떠나 갔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자신을 반대로 바꾸었다. 그들은 그들의 온전함을 잃었고 부족하고 처량하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에게 비추어진 신적인 사랑의 빛을 거절했고 이로써 신적인 요소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들은 존재하게 되었고 그들은 단지 사랑을 버렸다.

그들이 그들의 신적인 근원의 증거로서 모든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존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절했다. 그러므로 내 지속적인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가장 깊고도 깊은 곳으로 타락한 것이다.

왜냐면 그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었고 자신의 성분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한때 모든 온전하게 창조 된 존재가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고 항상 더욱 깊은 곳을

향했다. 이렇게 존재들이 나를 떠나 타락한 것을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설명해 주었다. 너희는 어디에 나로부터 타락이 있는지 안다.

이는 내 사랑을 거절한데에 있다. 이를 통해 존재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잃게 되었다. 그러나 존재들은 나로부터 발산 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하지 않고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능력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역사를 해야만 했다. 이제 이 능력을 변형시켜서 창조물로 만들면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 능력은 내 의지 대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타락한 존재들은 의무의 법칙에 따라 다른 형체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 창조의 작품을 통해 묵임을 받은 존재들이 서서히 높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갔다. 그들은 한때 나로부터 나온 타락한 영적인 피조물이다.

이 들은 내가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창조했던 존재들이다. 이 들은 내가 내 형상으로 자립적으로 존재하게 한 것이고 그들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다시 만들게 하기 위해 이제 끝 없이 긴, 고통이 충만한 귀환의 길을 가게 한 것이다. 너희가 존재들이 타락할 때 영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더 선명하게 너희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없다.

너희는 어떤 영을 말하느냐? 내가 영적인 존재를 창조 했고 그들은 나로부터 타락했다. 그러므로 혼은 영의 혼이 아니고 혼 스스로 한때 나로부터 타락했던, 사람 안에서 마지막 완성을 위해 육신을 입은 원래의 영이다. 타락하지 않은 영이 인간 안으로 육신을 입는다면, 그의 혼은 바로 원래의 영이지 영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제 모든 타락한 영들의 모든 귀환 과정 동안에 자신들의 시험 기간을 통해 전적으로 내 의지와 하나가 된 빛의 존재들로부터 계속하여 돌봄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설명해 주었다.

왜냐면 이런 존재들은 타락한 존재들이 최종적으로 귀환하게 돕는 데서 그들의 축복을 찾기 때문이다. 그들의 넘치고 큰 사랑은 계속해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항상 타락한 자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형체를 그들이 새롭게 입을 수 있게 돌보아 준다.

왜냐면 사랑은 항상 내 의지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향해 흘러가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식적으로 변화가 되어 그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는 단지 사랑이 이룰 수 있다. 인간으로써 존재가 스스로 다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축복되게 해줄 수 있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 이 사랑의 불을 단지 지펴야만 한다.

아멘

구속사역과 구속사역의 영적인 이유.

B.D. No. 8303

1962년 10월 19일

너희는 이 땅에서 항상 또 다시 인간 예수의 사명에 대한 설명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가르쳐야만 하는 부름을 받았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이 더 깊은 깨달음

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인류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구속사역과 그 영적인 이유에 대해 충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너희가 인간 예수의 사명에 대해 너무 부적절한 지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간 예수의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한 적이 없고 그러므로 구속 사역이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갖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의 모든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한 가운데 머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한때 영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큰 원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 전체와 우주의 모든 창조물들이 이런 타락의 결과였고 창조물들은 단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무수한 입자로 분해되어 창조물의 과정을 걸쳐 서서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간다.

영적인 존재가 귀환하는 길에 처한 상태는 실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지 못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비록 분해가 된 영적인 존재에게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존재는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고통을 느낀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기 전에 전적으로 자유한 가운데 살았고 그에게 모든 속박은 고통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가 거쳐야만 하는 광물의 세계나 식물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의 형체 안에서 파문을 받은 측량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가 하나님께 반역한 측량할 수 없는 죄짐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존재들이 가장 밝은 깨달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출처를 알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이로써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출처를 아는 가운데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부하고 이로써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이런 엄청난 원죄는 파문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받을지라도 속죄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 빛의 존재가 타락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구속역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하면서 죄짐을 해결하는 일을 맡지 않았다면, 타락한 존재들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영원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은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인 빛의 존재가 완성하기 원했던 역사는 일회적인 공훈의 역사였다. 그는 빛의 영역에서 죄를 지은 영적인 존재들의 어두운 영역으로 내려왔고 그는 처음으로 타락한 원래의 영인 루시퍼의 나라인 하나님의 대적자의 나라로 내려왔다. 루시퍼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묶어두고 각각의 혼에 대한 막대한 구매가격을 요구했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난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거친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매 가격을 지불했다. 그러므로 그는 한때 타락한 영적 존재의 큰 원죄와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짐을 속죄했다. 사람들의 죄짐의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하게 된 일이었다.

그는 일회적인 공훈의 역사를 행했다. 그는 사랑이 충만했고 인간인 자기 자신을 형성하여 영원한 신성인 사랑 자신이 자신 안에 거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사랑이 그를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었고 이런 사랑이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희생제사를 영접해야만 한다.

인간은 창조물을 거쳐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그의 각각의 입자들이 다시 모여 혼으로서 인간 안에 육신을 입을 수 있게 된 영적인 존재이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는 이제 의식적으로 귀환을 위한 길의 마지막 구간을 갈 수 있고 이제 또한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적인 존재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하는 그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칠 수 없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왜냐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적자에 대항해 승리한 그가 없이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예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시기를 구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모든 혼을 대적자로부터 빼앗는다. 구속 역사의 의미를 아는 이런 지식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사람들이 자원하여 그에게 향하고 그의 도움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그들이 아버지의 집의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고 이제 또한 영원히 그에게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큰 죄를 깨달았다.

B.D. No. 2316

1942년 4월 28일

너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너희 죄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 지식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전한 의미가 너희에게 선명하게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거부하려는 의지가 자주 강하다. 왜냐면 구원에 대한 생각과 사람 안에 강하게 발달된 자유에 대한 느낌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자신의 의지가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동안에는, 그는 자신의 의지가 묶여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를 속박에서 구원해준 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가 아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묶인 상태를 고통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를 위한 구속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면, 그가 이런 결박의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 그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자신의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의 권세에 대해 그는 알지 못하고, 비록 그의 의지가 자유할지라도,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에 빠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이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끔찍한 결과를 알지 못한다. 그는 대적자가 영원에 영원한 기간동안 그를 다시 사슬로 묶고, 그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이전의 불의를 행한 죄에 대해 속죄해야만 한다면, 저세상에서 그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써 이를 깨달았다. 다시 말해 인간 예수가 자신의 사랑의 삶을 통해 모든 존재의 원래 상태에 대해, 모든 존재의 아주 큰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가장 깊은 지식을 얻었고, 인간의 연약한 의지와 인간의 자신의 혼의 원수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람들이 원수의 유혹을 견디고, 이 땅에 거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마침내 원수와 원수의 권세로부터, 즉 원수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도록 돕기를 원했다. 사람들을 위한 이런 증가된 의지의 힘을 얻기 위해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의 피가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사람이 구원을 받게해줘야 할 구매 가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온전함으로 실제 가장 큰 위험을 알고, 그러므로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이를 피하게 해주기를 원했다.

그의 아주 큰 사랑이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당하는 저세상의 고통을 줄이기 원했다. 왜냐면 그는 어느 존재도 이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지은 끔찍한 죄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죄를 깨달은 일이 그의 의지가 극도로 활동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전에 사람이 한번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역사를 완성했다. 왜냐면 그런 역사에 가장 깊은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이전에 어느 사람도 이런 역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구원의 역사에 엄청난 의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인간 예수는 사랑으로 행한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삶을 통해 의지의 힘을 최대한으로 크게 만들었다.

모든 인류가 이 구속역사에 참여해야 한다. 예수가 한 세대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구속 받지 못한 존재로서 마침내 자유를 얻기 위해, 이 땅의 삶의 과정을 가야만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러나 구속사역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원하여 자신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인간이 모든 존재의 죄짐을 줄이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죄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죄를 벗게 된 사람들에게 속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

B.D. No. 7237

1958년 12월 24일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 얼마나 많은 입술이 그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심장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 어린 아이가 태어났고 어린 아이의 혼은 빛의 나라에서 내려왔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어린 아이 안에서 육신을 입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기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인간 예수는 어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가 탄생할 때에 일어난 일들은 평범한 인간과 같지 않았고 특별한 겉형체 안에 비범한 어린 소년이 거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어린 소년이 영원한 신성의 겉형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영원한 신성은 단지 어린 예수처럼 순수하고 죄 없는 인간 안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다. 왜냐면 어린 예수는 큰 의미가 있는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고 이 사명을 위한 조건도 특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도 이 아기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흠이 없는 혼을 담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흠이 없는 겉형체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임한 일은 지극히 큰 긍휼의 역사였다. 왜냐면 이 땅이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이 땅의 모든 거주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두움의 권세자의 다스림을 받고 묶여 있었고 그들이 죄와 고통 가운데 자유가 없는 억압 아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때 자원하여 자신을 떠나 항상 점점 더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 더이상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구원자를 부르짖던 자신의 피조물의 어려움을 알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름을 듣고 그의 권능과 사랑에서 나온 존재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어두움 속으로 타락했을 때 그의 충만한 빛 안에 머물렀다. 예수의 혼은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했고 또한 타락한 형제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돕기를 원했다. 왜냐면 예수의 혼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복과 축복이 있고 그분과 멀리 떨어지는 일에는 환난과 고통과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두 상태를 다 알고 불행한 존재들을 사랑했고 죄를 지은 사람이 결코 속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다. 그러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순수하고 순결한 혼이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했다. 왜냐면 혼이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이였다. 하나님 또는 사랑이 인간 예수를 채웠다. 이로써 인간 예수가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의 일을 성취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자신을 담기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인간의 형체를 취했다. 아기 예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사랑의 광선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심장은 사랑과 감사의 찬양으로 충만했다. 왜냐면 그들의 심장이 순수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아기 구유에 와서 아기 예수에게서 발산 된 사랑을 느꼈고 아기 예수를 향한 사랑이 타올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들은 단지 전설로 여기지만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해진 모든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 아기 주변과 자연계에서 하늘과 땅에서 기적 위에 기적이 일어났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아기 예수 안에 육신을 입은 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가장 큰 기적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을 때 사람과 동물들이 가장 거룩한 경외심과 침묵에 사로잡혔다.

그의 영이 깨어난 사람의 심장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 왜냐면 그에게 마찬가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추기 때문이고 그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구세주가 이 땅에 임한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이고 그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공훈의 역사를 이룬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이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단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온 그날 밤 아기 예수가 세상의 빛을 보았을 때 일어난 모든 일에 생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찬양을 드릴 것이다: "이 땅의 평화가 임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

B.D. No. 7238

1958년 12월 25일

어떤 사람도 사람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임함으로 표현 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죄짐이 그를 공훈히 여기게 했다. 왜냐면 이 죄가 가장 전적으로 죄를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항하는 죄였기 때문에 존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지 않았고 이 존재가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있었고 그러므로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나은 깨달음과는 반대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장한 자를 따랐다. 비록 그들이 그가 하나님의 창조 의지와 능력의 작품임을 알았

지만 그들이 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랐다. 존재들에게 깨달음의 빛이 있었고 그럴 지라도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그들의 큰 죄이다.

그들은 이런 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만들 수 없었다. 그들은 이로써 짐을 진 상태가 되었다. 단지 하나님 만이 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죄를 사해주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왜냐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 속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류를 위해 이런 속죄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고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 역사를 완성했다.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인류가 한때 하나님의 뜻을 떠남으로 스스로 지은 죄짐을 자신이 지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의 형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은 한 사람이 이 짐을 자신이 짊어졌다. 이런 큰 죄에 대한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었다.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게 했다. 사랑 만이 그로 하여금 이런 긍휼의 역사를 행하게 했다.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진 한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 땅의 길을 갔다. 그 안에서 사랑이 항상 증가되었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에 사랑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은 것처럼 항상 단지 사랑이 인간 예수의 말과 행동을 정했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을 이웃들을 위해 희생한 한 사람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지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런 긍휼의 역사를 행하게 했고 그가 먼저 사람들이 죄짐을 벗지 못하면, 그들에게 빛의 나라를 향한 문이 닫혀 있었고 닫혀 있어야만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이 원죄인지 알았고 그들이 절대로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한 것은 진실로 그 안의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들의 측량할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원했던 것은 영원한 사랑 자체였다. 왜냐면 사람 안에 영원한 신성이 모든 충만함으로 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은 진실로 그 안에 거한 하나님 자신이 행한 것이다.

사랑이 인간 예수가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정했다. 그러므로 실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 사람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두 존재가 아니라 신적으로 하나 임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됨을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인간적인 형체를 채웠고 이로써 인간의 겉형체인 예수가 바로 볼 수 있는 형태로서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 항상 바로 하나님 자신인 신적인 사랑 자신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를 인정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도피할 것이고 예수를 부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부르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그의 원죄는 해결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자

신이 그의 죄의 속죄를 위해 이 땅에 임했고 그를 위해 속죄의 역사인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아멘

인간 예수의 자유의지.

B.D. No. 7992

1961년 9월 15일

십자가의 내 고난과 죽음도 마지막까지 자유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 왜냐면 내가 실제 **십**이 일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들의 미워하는 생각을 나에게 실행에 옮기려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내가 완성한 역사는 내 전적인 자유의지가 이룬 역사이고 나는 이웃들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 왜냐면 인간 예수로써 나는 한때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전 인류가 처해 있는 끔찍하게 처량한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내 사랑이 타락한 모든 내 형제들을 돕기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아버지께 속죄의 제사로 제공했다.

나는 그렇게 행하도록 전혀 강요받지 않았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는 내 의지를 정하지 않았다. 나는 나로부터 울어 나와 전적으로 자유롭게 행했고 이런 역사는 나에게 끔찍하게 어려웠다. 왜냐면 내가 구속사역이 남김 없이 완성되기까지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으로써 아버지께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 그가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기를 기도하고 싸웠고 나는 강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아버지께 드렸다. 왜냐면 내 안의 사랑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이고 영원한 사랑 자신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랑이 인간으로써 내 의지가 이 역사에 저항을 했었다면 불가능했을 내 역사 가운데 나를 정하게 했다.

불행한 인류를 향한 사랑이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들을 돕기를 원했다.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을 짊어지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짊어진 죄는 측량할 수 없었다.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인간으로써 측량할 수 없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짊어져야만 했다. 사랑은 힘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었다. 만약에 사랑의 힘이 십자가 상에서 내 육체의 죽음으로 역사가 완성되고 내 십자가의 제사를 영접하고 구속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보장이 되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으면, 진실로 내 육체가 이미 이 전에 죽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할 지는 다시 사람들의 자유의지 자체에 달려 있다. 왜냐면 모든 존재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 존재가 인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깨닫고 예수 안의 나 자신을 깨닫고 스스로 자유의지로 자신과 자신의 죄를 나에게 맡기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나에게 돌아오기 원하면, 존재들이 다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이 의식적으로 내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고 자신의 연약한 의지가 강하게 되는 일을 체험하게 되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보장 된다.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써 짊어졌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의 아주 큰 죄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사랑으로 충만했고 자유의지로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가장 힘든 희생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제사로 만족하고 그의 타락한 형제들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원했던 예수의 큰 사랑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나는 이 제사로 만족했고 그러므로 내 공의가 만족되었다. 왜냐면 속죄가 없이는 내가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속사역은 자유의지로 완성이 돼야만 했다. 나는 어떤 존재 안에서 필요한 속죄를 행하게 요구할 수 없다. 왜냐면 나를 떠난 큰 죄는 내 사랑에 대적하는 죄였기 때문에 속죄는 다시 사랑의 역사 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인간이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는 사랑에게 큰 공간을 제공해 그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사랑이 이제 그가 구속사역을 이루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사랑이 죄를 용서했다.

사랑이 한 사람의 심장을 전적으로 채웠고 이 사랑이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고 나 자신이 인류를 위해 고통을 당했고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예수 자신이 모든 고난을 짊어졌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을 자유의지로 행했다. 왜냐면 사랑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가장 큰 희생 제사를 드릴 준비되어 있고 사랑은 모든 일을 이루게 한다. 왜냐면 사랑은 가장 큰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사랑으로써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역사했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했다.

아멘

예수의 피를 통해 죄짐을 해결.

B.D. No. 8349

1962년 12월 6일

너희 모든 사람은 내가 창조한 영들이 한때 타락했던 아주 큰 죄를 나에게 속죄하기 위해 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완성한 구속사역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임한 나와 내 사랑에 관해 전하게 했다.

왜냐면 사랑이 이런 구속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내 제자들은 내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항상 또 다시 나를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먼저 내 신적인 사랑의 계명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만 한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해 설명해 줘야만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내 말씀으로 양식을 제공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가운데 인간 예수가 드린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알려주라는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의로
운 보상을 하기 위해 아주 큰 속죄의 제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피
를 흘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너희가 인간으로
써 이런 십자가의 희생 제사의 크기를 파악할 수 없음을 말해 줘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 안에 영원한 사랑 자신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함을 너희
가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 이 지식이 너희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자유의지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너희의 죄를 그에게 드리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 자신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의 면전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할 것이다.

나 자신의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문제와 십자가에서 내가 희생의 죽음을 당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왜냐면 다른 방법으로는 한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
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위에 구속사역의 은혜를 영접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영원히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 존재
를 내 빛과 축복의 나라에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선택한 내 일꾼을 통해 내가
항상 단지 노력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찾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은 받아야만 한다. 그의 죽
음은 희생의 죽음이다. 왜냐면 그는 이 죽음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의지로 말
할 수 없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갔고 이 길의 최고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사람들에게 죄
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사람의 죄가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 사함
을 받았다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너희는 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그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이런 구속사
역을 영접하기 위해 단지 너희의 자유의지 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받은 사람들에게 속하기를 원 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렸고 의식적으로 그는 마지막 길을 갔다.

왜냐면 그는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의식적으로 십자가 아래
로 가야만 한다. 너희에게 너희의 의지와 반대로 구속이 주어질 수 없다. 한 사람이 이런 가장
힘든 희생 제사를 드렸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전적으로 내 사랑의 힘
으로 채우고 있었지만 인간 예수는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자신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해방시키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그는 단지 인간으로써 고통을 당했고 단지
인간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뒤로 물러섰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의 구역 사역과 은혜의 보물을 활용하지 않는 동안에 그들의 혼에 대한 권한
을 가지고 있는 내 대적자로부터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피로 구매했다. 그러나 구속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적자는 자유롭게 놓아 줘야만 한다.

왜냐면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큰 제사가 드렸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이에 관한 지식을 보내 주면 너희는 이를 전파해 야 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너희는 내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준 이 땅에서 스스로 사랑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사랑의 역사를 완성했던 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왜냐면 그는 영원으로부터 너희는 그로부터 떨어져 있게 만든 너희들 스스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너희의 죄로부터 구속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써 너희의 이 땅의 길은 만약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헛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 길로 너희를 따라올 수 없고 따라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 줘야만 한다. 왜냐면 그는 너희에 대한 모든 권세를 잃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나로부터 타락한 일은 사랑을 통해 속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없이 죄를 속죄하는 일.

B.D. No. 2929

1943년 10월 17일

사람의 죄의 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가 죄를 끝까지 갚아야만 하고, 그가 완전히 혼자서 죄를 처리해야만 한다. 그는 영원에 영원을 걸쳐 죄를 속죄해야만 한다. 왜냐면 인간의 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 죄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한때 하나님께 반역한 큰 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은 죄로도 혼이 끝없이 긴 기간동안 혼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설 수 없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때 하나님께 반역한 큰 죄는 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속죄할 수 없고, 그러므로 언젠가 영원의 세계에서 구세주를 찾기 위해 이 큰 죄를 영원으로 가지고 가야만 한다.

존재는 영원에 영원을 거쳐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고, 영원에 영원을 거쳐 자유가 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묶임을 받은 상태를 견뎌야만 한다. 존재는 영원에 영원을 거쳐 은혜의 태양을 잃게 된다. 이런 일은 가장 멀리 하나님을 떠난 일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일이다. 왜냐면 존재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위치를 고수하고, 절대로 그의 의지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자신의 죄값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완전히 모순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는 스스로 자신을 처벌한다.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구속을 받게 하면, 그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그의 모든 속박은 사라지고, 모든 속죄하는 일이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큰 희생을 치렀다. 왜냐면 그는 저세상의 끝없는 고통의 길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가 이 땅과 저세상의 큰 고통을 긍휼히 여기고, 이를 짧게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죄를 용서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구매한 대가이고, 그로 인해 모든 죄값을 치렀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이 한가지는 사람이 이런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로써 그의 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댓가를 지불한 죄에 속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변하지 않고 남아 있고, 짐으로써 이 땅의 죽음 후에 영의 나라로 옮겨지고, 존재가 영원히 이 짐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구속하려는 의지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지 멸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람은 무기력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하나님을 향해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구명한 강하게 된 의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고,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고, 자신의 죄와 자신을 그의 발 앞에 놓고,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모든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유가 없다.

B.D. No. 6860

1957년 6월 29일

너희가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면,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으로 내 대적자를 벗어날 수 없고 너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적자를 이겼고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했고 그와 나는 하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그러면 진실로 도움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일치시킬 수 없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에 아직 확신이 없고 너희가 가장 깊은 내면에서 믿지 않고 단지 입으로 어떤 말을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없이 이 땅의 길을 가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너희를 아직 지배하고 있고 너희 혼자서는 그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을 너희에게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한때 자원하여 따랐던 자와 결별하고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가 한때 자원하여 따랐던 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도움을 나에게 요청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가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는 일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이 아직 나를 외면하는 일을 의미하는 너희가 한때 자원하여 따랐던 자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로서 너희의 연약함은 고려가 된다.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므로 비록 너희 자신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채운 속박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한 사람이 사랑과 긍휼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인간 예수 안에 나 자신이 육신을 입었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고통받는 상태를 긍휼히 여겼고 너희에게 다시 나에게 돌아와 너희를 위해 자유와 축복을 의미하는 너희의 원래 상태에 들어갈 기회를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한 사람으로서 너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동시에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를 짊어지고 너희를 위해 내 대적자에게 속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이로써 너희 자신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면, 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소

원을 표현해야만 하고 너희가 나에게 향하기를 원해야만 하고 너희가 내가 그들의 혼을 너희의 주인으로부터 구매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활용해야만 하고 너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불러야만 한다. 너희가 그를 믿고 그의 구속역사와 내가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일을 믿는다면, 너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믿게 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또한 더 이상 내가 없이는 이 땅의 길을 가지 않고 그러면 너희가 또한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한번 진지하게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실제적인 과제를 질문해야 한다. 너희는 단지 이 땅의 너희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진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너희가 이런 의지를 갖는다면, 유일하게 너희를 도울 수 있는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라.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이고 너희가 그를 부르면, 너희가 나를 부르는 것이고 너희의 부름은 들리지 않고 사라지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의 이 땅의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를 진지하게 원하는 사람의 생각은 또한 곧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을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도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장 내적인 의지와 가장 긴밀한 갈망을 정할 수 없고 가장 내적인 의지와 가장 긴밀한 갈망은 자유하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경고하고 훈계할 수 있고 너희가 생각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내적 갈망을 따라 행해야만 하고 행하는 정도에 따라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너희의 성숙한 상태가 될 것이다.

아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B.D. No. 7950

1961년 7월 26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너희는 구속을 받았다. 이 구속으로부터 모든 우주의 어떠한 존재도 제외되지 않았다. 왜냐면 그는 그의 역사를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역사를 완성했다.

그러나 존재 스스로 이 역사를 인정해야만 한다. 의식적으로 구속사역을 활용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자유의지로 자기를 깊은 곳까지 따랐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존재들은 자유의지로 대적자에게 향했고 하나님을 떠났다.

존재는 자유의지로 그로부터 다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존재들은 그를 떠나기 위한 능력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대적자에 의해 전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않았으면, 존재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머물렀을 것이다.

예수는 구속사역을 통해 그는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은혜를 구매해 타락한 자들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어서 존재들은 이제 대적자에 대항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었다. 구속사역을

통해 어떠한 존재도 귀환하게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사역은 그가 귀환하게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귀환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귀환을 위해서는 항상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타락한 영의 존재들이 순식간에 구속을 받았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창조의 작품들은 이미 영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은 한때 타락한 영의 존재들이 이 땅의 과정을 자유롭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게 만들어 졌다.

만약에 그가 예수의 구속사역과 그가 얻은 은혜를 활용하면, 그의 구속은 확실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출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헛되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게 된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 또는 저세상에서 성장해 나가서 다시 빛과 능력과 자유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역사할 수 있다.

그가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의지만이 필요하다. 왜냐면 예수가 그를 위해 죄를 속죄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를 위해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빛의 나라의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 구속역사가 자신을 위해 완성되었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어야만 한다. 그는 예수를 자신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이런 구속역사의 축복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구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큰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 스스로는 자신의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대항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의 존재들이 구속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모든 타락한 영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했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은혜를 구매했다. 이제 모든 존재가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진 단계에 스스로 다시 도달하게 하면, 이 은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너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지식이다.

왜냐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의 집의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절대적으로 가야만 하는 그러나 너희에게 전적으로 구속을 보장해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는 구속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절대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죄짐이 너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는 이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 죄를 십자가 아래로 너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린, 이로써 너희를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구매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갈 수 있다. 단지 너희의 의지가 이

은혜를 의식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 너희는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너희는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를 완성시키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사랑을 행하는 것을 통해 너희의 성품을 다시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다. 너희는 단지 가장 긴밀하게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너희의 혼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의 자녀로서 이제 빛과 축복에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문을 열었다.

B.D. No. 6850

1957년 6월 12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너희 모두에게 빛과 영광의 생명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과 여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과 영광의 생명의 문이 닫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 왜냐면 그의 이 땅의 여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야 하고 너희가 그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려면, 십자가로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그의 이 땅의 삶의 목표였다. 왜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인간들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발견하게 된다. 이말은 너희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너희의 죄를 그의 십자가 아래 그에게 옮기는 일을 의미하고 이로써 그의 신적인 사명을 믿는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이로써 너희가 너희를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분리시키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너희의 의지를 선언하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나 자신을 깨닫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생의 문에 도달하려면, 너희는 골고다 십자가로 가야만 한다. 왜냐면 다른 어떤 길도 이 문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너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너희는 질문하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의 사랑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항상 또 다시 들을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귀를 막고 모든 말이 공허한 소리처럼 너희를 스쳐 지나가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역사에 관해 듣는 내용은 너희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너희 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너희 안에서 아직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의 귀로 들은 것을 아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언젠가 축복의 문 앞에서 기다려야만 하게 될 것이고 입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구속받지 못했고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고 그의 피가 너희를 깨끗이 씻을 수 없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가득한 가운데 영원의 문 앞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너희 자신이 그에게 나아가야만 하고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너희의 죄를 의식하고 그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고 그가 너희를 돌보고 또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기를 진심으로 간구해야만 하고 너희는 그의 용서를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죄짐은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고 이제 빛으로 가는 길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이제 영원한 축복의 문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너희가 여전히 그의 이름이 모든 것임을 믿기 원하고 깊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너희를 여전히 짓누르는 죄의 결과인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을 믿기 원하면, 내가 이런 큰 죄짐을 너희에게서 넘겨받기 위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 사는 너희가 탄식하는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그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고 십자가에서 그의 이 땅의 길을 마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자신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깊은 곳으로부터 혼의 구원. 저 세상.

B.D. No. 5153

1951년 6월 17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다. 그들은 이 땅이나 또 는 저 세상에서 자신의 상황을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아직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깊은 곳의 어두움의 영역에서 밝은 아침으로 나오기 위해 단지 이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 위를 향하는 이정표이다. 왜냐면 최악된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이 길을 열었고, 그가 깊은 곳에 있는 혼들을 위해 구매 가격을 치렀고, 모든 혼이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택하고, 그에게 도달하기 위해 깊은 곳을 벗어나기 원하면, 모든 혼이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세주 자신이 혼을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고, 그의 피로 죄를 씻어 죄짐이 사라지고, 혼을 위해 구속역사가 헛되이 드러진 것이 아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고, 지옥으로 내려 갔다. 그는 또한 깊은 곳에 있는 혼들에게 구속사역의 은혜를 주었고, 또한 저 세상의 나라에서도 혼들을 위해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없는 구원은 절대로 없다. 왜냐면 그가 죄를 위해 흘린 피가 단지 혼이 지은 죄에 대해 보상할 수 있고, 그의 용서를 의식적으로 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영의 나라에서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를 완성했고, 이런 사랑의 역사는 저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의 긍휼은 구속받지 못한 상태로 이 땅을 떠난 혼들에게까지 임한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도 혼은 이 땅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찾기를 원해야만 하고, 그의 사랑이 자신의 위험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해야만 하고, 그의 사랑이 자신을 붙잡고 자신을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리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한 지식과 이를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혼이 이 땅에서 이런 지식을 얻지 못했다면, 혼에게 이런 지식을 전해줘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 땅에서 보다 훨씬 더 어렵다. 왜냐면 어두운 혼은 지식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적고,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위험에 처하고 그들의 현재의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 도움을 청한다면,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지 않게 된다. 그들이 완전히 완고하지 않으면, 중보기도와 사랑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생각을 통해 지식을 얻도록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지식이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고, 그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할 수 있다. 그의 도움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부르는 모든 부름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가게 된다.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저 세상의 혼들이 이를 체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들이 절대로 그들의 생각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의 사랑과 긍휼로 고난을 줄여주고, 끊임없이 고통이 충만한 상태를 축복된 상태로 바꿔주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존재의 의지가 항상 필요하고, 이런 의지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 믿음과 사랑 안에 섰고 이로써 아직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많은 중보가 필요하다.

아멘

깊은 곳의 존재를 구원하는 일에 사람들이 주는 도움.

B.D. No. 6205

1955년 3월 5일

나는 무한한 은혜를 베푼다. 왜냐면 내 사랑이 너희에게 축복된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혼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한다. 왜냐면 혼이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고 내가 또한 아직 연약한 혼들을 돌보고 혼에게 빛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멈추지 않는 모든 혼에게 향한다. 내 사랑은 돕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아직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인 존재를 붙잡고 존재에게 존재가 벌어들이지 않은 내 사랑을 증명할 은혜를 베푼다.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깊은 곳까지 혼을 뒤따르고 혼을 구원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속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고 그들이 협력하는 일이 깊은 곳의 혼을 구원하는 일이면, 내가 그들의 협력을 받아들이고 축복한다는 것을 해야만 한다. 내가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구원하는 목표를 가진 모든 일을 축복한다. 너희 사람들은 중재자로서 개입하면서 도울 수 있다. 왜냐면 깊은 곳에 있는 혼들과 나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이런 혼들이 내가 직접 임재함으로 그에게 비추는 과도한 빛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고 이런 임재가 믿음의 강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사랑을 통해 다리를 건설하고 이제 깊은 곳의 혼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도달하기 위해 다리를 건널 수 있다.

내 사랑과 은혜가 또한 이런 혼들에게 일꾼인 빛의 존재를 보낸다. 빛의 존재는 자신을 가린 가운데 혼들에게 접근하여 혼들이 깊은 곳에서 벗어나 높은 곳을 향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혼을 향한 사랑이 혼에게 도움을 주도록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면, 너희

는 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너희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혼들에게 너희가 더 실제적으로 보이고 너희가 혼들이 전에 거했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사랑이 직접적인 발산으로 측량할 수 없는 효력을 주는 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너희는 특별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내 말씀은 그들이 느낄 수 있게 수월하게 해주고 그들은 내 말씀을 행복하게 느낀다. 그러므로 내 말씀은 혼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다. 저세상의 빛과 사랑의 사자들도 혼들에게 내 말씀을 설명한다. 그러나 혼들이 너희를 통해 축복되기 위해 추구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에는 혼들은 아직 이런 빛의 존재들에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혼들이 너희를 통해 너희의 지시를 믿고 따를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땅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혼들을 돕기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과제로 삼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어둠 속에 거하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노력이 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눈에 띄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깊은 곳에 거하는 혼을 위한 문을 열어 그들이 너희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다. 혼이 내 대적자의 사명을 받아 너희를 공격할 수 없도록 혼은 내 뜻이 아니면 너희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혼들은 온순하게 되어 너희에게 다가와 도움을 청하다. 너희는 이제 그들에게 내 말씀을 제공하면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내 말씀은 그들에게 올바른 도움이고 그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

의식적으로 이런 혼들을 돕고 구원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반드시 혼을 구원하는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될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혼에게 내 말씀을 전하고 혼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연결시킨다. 혼이 이제 나를 피난처로 삼으면, 혼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구원을 받는다.

아멘

구속을 받은 혼들의 축복과 감사.

B.D. No. 6423

1955년 12월 12일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혼들은 넘치는 감사의 느낌으로 나를 칭송하고 찬양한다. 혼들의 의지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땅의 사람들의 공허히 여기는 사랑으로 혼들은 그들의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안의 나를 부르고 깊은 곳에서 나에게 올라올 수 있었다. 혼들은 이제 그들의 축복을 표현하기 원하고 그들의 모든 사랑은 그들을 구원한 분에게 향하고 그분을 칭송하며 감사하는 일에 그들은 피곤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역사하여 그들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과 같이 존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을 다시 도울 것이다.

혼들이 불행한 존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사람들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면, 이 땅의 사람들의 사랑의 동역이 이런 혼들을 쉽게 해줄 것이다. 그들이 빛을 줄 수 있기 위해 스스로 빛을 받아야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가운데 빛을 발산하면, 그들은 항상 빛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빛을 받는 모든 곳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흘러갈 수 있게 자신을 여는 그릇이 있는 곳은 빛과 능력의 저장소이고 빛을 갈망하는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이곳

을 둘러싸고 있다. 빛과 능력이 어느 정도 각각의 혼들에게 흘러 가는지는 그들의 성장 정도와 사랑의 정도와 갈망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모든 혼들은 계속 나누어 주고 전하는 일을 통해 이 정도를 높이려고 한다.

한번 빛을 영접한 혼은 다른 혼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 수 없다. 빛은 자체에 밝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혼은 이 빛을 활용한다. 그러므로 혼이 깊은 곳에서 빛을 찾으면, 혼이 언젠가 자신에게 빛이 비춰지기 원하면, 이는 특별하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왜냐면 이제 혼에게 빛의 흐름이 중단하지 않고 흐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들이 빛의 비추임이 그들에게 주는 말 할 수 없는 축복된 느낌을 통해 모든 저항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확실한 효과는 혼들이 이제 다른 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빛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빛은 지혜이고 진리의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쉬지 않고 사랑의 비추임으로 발산된 이 빛이 그들에게 내 말씀을 전한다. 내 말씀은 무한 가운데 모든 존재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저항이 없는 곳에서 반응한다. 가장 높은 혼의 성장에 도달한 존재는 내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연약한 혼들은 내 말씀을 다시 전하는 사람을 통해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내 말은 항상 빛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내 말은 항상 축복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단지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서 축복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 말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빛을 갈망하는 존재들로 둘러 쌓여 있다.

그러나 단지 순수한 말씀이 어둠 속으로 발산될 것이고 순수한 말씀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나 자신이 모든 곳에서 혼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받아 갈 수 있는 빛의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 순수한 말씀을 이 땅에 보낸다. 이런 빛의 저장소가 영의 나라에 세워졌는지 또는 이 땅에 세워졌는지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모든 곳에서 같은 나로부터 나온 영원한 진리의 빛이 발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빛의 저장소는 자주 저세상에 있는 영의 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없는 주로 이 땅 가까이에서 거하는 혼들의 방문을 받는다.

그러나 바로 이런 혼들의 숫자가 더 많고 이런 혼들에게 내 말씀을 주는 일이 자주 유일한 구원이다. 내 말씀을 받는 일은 이런 혼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할 수 없다고 믿는 특별한 도움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혼들은 영의 나라에서 다시 말할 수 없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돕는 자가 된다. 그들은 나를 쉬지 않고 찬양하고 칭송하여 어두운 영역에 진정한 소요를 일으킨다. 왜냐면 그들은 혼들이 빛이 발산되어야 할 곳까지 자신을 따르도록 혼들을 설득시키기까지 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구속하는 일은 끝없이 큰 영역 될 것이다. 왜냐면 내 말씀은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만 하면, 이미 빛이 충만해진 가운데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의 나라에서 너희가 너희의 축복을 계속하여 높이기 위해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를 위해 마련한 샘 근처로 모여야 한다.

아멘

구원을 향한 인간의 과정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고 믿는 일 - 은혜를 활용하는 일

구속 사역... 구속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

B.D. No. 0466

1938년 6월 14일

너에게 제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로써 너에게 오늘 너희 사람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계시가 주어진다. 인류의 대부분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이 땅에서 아무런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저 세상에서 상급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상당한 오류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람은 실제 공의하다고 할 수 있고, 항상 이 땅에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다. 그는 이웃에게 형제로서 행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그러면 그의 상급은 진정으로 아주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세주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절대로 그의 죄에서 구속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단지 믿음 만이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의 실이 영원히 함께 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구원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곳에서, 구세주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거부하는 곳에서 신성 자신도 멀어 질 것이다.

사람의 공의한 생각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심장이 그리스도께 신앙고백을 하지 않을 때까지 영의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영의 거듭남이 없으면 영원한 행복의 길은 결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저 세상에 먼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찾는 그의 탐구는 힘이 들고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심장으로 엄격히 따르더라도 예수의 신성을 향한 선명한 지식이 짧은 시간에 이를 수 있는 일을 이를 수 없다. 인류의 죄짐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임했다는 한 가지만 명심하면,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분명한가! 그런 구속 사역을 오히려 신성이 결여된 인간의 자기 희생의 행위로 간주한다. 그런 사람은 구속 사역의 은총과 축복을 자신에게서 절대로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의심할 경우 하늘 아버지께 깨달음을 간구할 때만 그는 그에게 기꺼이 자원하여 주어지는 신성의 표적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사역에 대해 명백하게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형언할 수 없는 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 가길 원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게 이해하게 해주고 항상 사람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곳으로 도우러 올 것이다. 그러나 의지가 선행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고 깨달음을 구해야만 하고, 그러면 그에게 기꺼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의 나라의 문은 구속의 역사를 통해 비로소 열렸다.

그러나 구세주의 신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문을 통해 들어가겠느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충분히 계시되었다.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축복을 기대하는 일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 너희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천국을 얻는 일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천국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너희의 다른 투쟁은 헛된 것이다.

너희는 확실히 선한 삶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항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찾고 굳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 비로서 너희의 이 땅의 삶이 제대로 성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은혜를 활용하는 일.

B.D. No. 6670

1956년 10월 15일

너희의 이 땅의 삶이 영원을 위해 성공하려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얻은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런 은혜를 활용하지 않으면, 너희의 육체가 죽은 후에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보장하는 성숙한 정도에 너희가 도달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에게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난 타락으로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되었고 너희가 너희를 깊은 곳으로 끌어 들인 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이런 권세 아래 있고 너희 자신의 힘으로 이런 권세에게 저항할 수 없다. 너희에게 또한 이런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추구하려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그러나 너희가 한 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확실하게 힘의 받을 수 있고 의지가 강하게 될 것이다. 이 한 분은 너희를 간수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너희를 위해 구매했다. 왜냐면 그가 너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알았고 대적자의 권세를 무너트리기를 원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이로서 너희가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면, 이런 대적자가 너희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게 되었다.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이 행해졌고 이로서 너희가 이제 다시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혼의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너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자신을 구원해야만 하고 그에게 힘과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힘과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혼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해야만 하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런 보물을 구매한 분에게 힘을 구하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할 때 내 대적자가 아직 너희를 지배한다. 이 땅의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일은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내 대적자에게서 돌이켜 나에게 향하게 하는 일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단지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기 위해 인간 예수 안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너희는 한때 나를 거절했고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나를 떠났다.

이런 큰 죄가 너희를 약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이 너희의 저항을 통해 더 이상 너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기를 내가 원하면, 나는 먼저 너희에게 힘을 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요구하지 않은 어떤 것을 너희에게 줘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줘야만 하고 이 은혜를 사랑이 너희를 위해 드리기를 원했던 엄청난 희생 제사를 통해 다시 구매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희생 제사를 인정해야만 하고 이로써 희생을 치른 분인 인간 예수를 또한 인정해야만 한다. 그는 가장 깊은 사랑으로 묵임을 받은 혼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런 인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육신을 입었다. 왜냐면 나는 영원으로부터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지나칠 수 없다. 왜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힘을 얻고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연약한 상태로 머물고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절대로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로 충분하다. 이런 부름이 너희가 그를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빛과 힘과 축복으로 다시 돌아 가기 위해 너희에게 이제 필요한 은혜가 그의 무한한 은혜의 샘에서 너희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이 땅의 삶은 헛된 삶이고 너희는 깊은 곳에 머물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를 때까지 대적자가 너희를 붙들기 때문이고 너희의 의지가 아직 너희를 자유롭게 내주지 않는 자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면, 대적자에게 더 이상 너희에 대한 권세가 없다.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는 일은 또한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고 너희가 이제 이 땅의 삶의 시험에 합격한 일이다.

아멘

구속 역사의 은혜를 활용하라.

B.D. No. 6672

1956년 10월 17일

너희가 구속역사의 은혜를 활용하지 않으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활용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인간으로서 너희의 의지를 단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의지가 아주 연약하게 되었을지라도 너희가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너희에게 구속을 가져다 준 분을 부르는 일이 가능하다. 이런 부름이 이미 그 분이 구매한 은혜를 요청하는 일이다. 그 분을 부르는 일은 인정하는 일을 요구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았을 때 생각해보면서 자신이 받은 이성의 은사를 단지 활용하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세주가 이미 그를 붙잡고 그에게 올바른 생각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연결이 이뤄지고 은혜가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구속역사에 관한 모든 가르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은 다르다. 그러므로 그는 자유의지로 은혜의 샘에 자신을 담는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단지 순수하게 세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을 삶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의 의지는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잘못 된 방향 가운데 머물게 된다. 그러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너희는 너희의 존재를 잃지는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세상의 삶을 활용하지 않을지라도 너희의 육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의 상태와 축복되게 활동을 하는 상태를 맞이하지 못하고 너희는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준 구속을 너희가 영접했다면, 너희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것이다.

너희의 의지는 무시될 수 없고 너희의 의지가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갖는 자세에 따라 너희의 상태가 자유롭게 되거나 또는 묶임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런 구원을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구매한 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구원도 기대할 수 없다. 그 분은 너희의 모든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너희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나 그 분을 멀리하고 그 분이 너희를 위해 얻은 은혜를 영접하지 않는 너희가 어떻게 자유로운 운명을 기대할 수 있는냐? 너희가 아직 다른 주인에게 너희 자신을 드린 동안에는 너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냐? 너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주인과 관계를 끊어야만 한다.

너희의 죄짐이 해결되면, 너희가 비로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너희 자신은 영원으로부터 너희의 죄짐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분이 너희를 위해 죄들을 짊어졌고 속죄했다. 너희는 이 땅의 삶에서 그 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분이 너희를 위해 죄짐을 해결해주기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여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이 땅의 삶을 올바르게 활용하게 된다. 이 땅의 삶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목적으로 너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 자신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너희의 죽음 후에 너희가 축복된 나라로 자유롭게 빛으로 충만한 가운데 올라 갈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일을 보장하는 은혜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 단지 예수를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너희의 자유의지로 이런 큰 기회가 지나가게 할 수 있고 끝없이 오랜 동안 어둠과 속박 가운데 다시 머물게 할 수 있다. 너희는 은혜의 선물에 너희 자신을 열어주어야만 하고 자유의지로 예수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성장을 계속해나갈 것이고 너희에게 또한 축복된 삶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너희를 죽음의 밤에서 빛과 영광을 가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죄의 짐. 용서.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B.D. No. 3335

1944년 11월 19일

구속 역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확실하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의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고, 그는 예수님이 짊어진 고난과 죽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느낀다.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굽히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혼이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삶의 싸움에서 대적자에게 시험 받거나 또는 잠시 대적자에게 눌린다면, 항상 또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도피한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므로 만약에 그들이 항상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켜주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인내심이 많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이 죄를 짓고 깊이 후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오면, 항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안다. 왜냐면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시간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의 은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모든 죄는 자신이 모든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속죄를 이룬 분에게 전가된다.

이런 은혜의 역사는 너무 커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와 연결된 사람만이 항상 잔지 이를 이해할 수 있고, 항상 단지 믿음을 통해 자신을 그와 연결시킨 사람만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위험은 아주 크고, 종종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 왜냐면 인류가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들이 자신의 죄짐을 가지고 그에게 피하지 않고, 자신이 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짐을 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의 죄짐은 상쇄될 수 없고, 항상 커지고,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짓누른다. 이 짐은 너무 커져,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들이 이 짐으로 기절하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자신이 죄로부터 구속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짐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그의 죽음으로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제물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기에 충분한 속죄를 하나님께 드렸다. 왜냐면 그는 가장 순결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죄도 없었고, 그러므로 그의 제물은 인류의 모든 죄를 보상했다.

그러나 그의 속죄 제물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고, 그들이 속죄의 제물로 얻은 은혜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죄는 사람을 아래로 떨어지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을 다시 끌어 올린다. 죄는 혼의 죽음이다. 그러나 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시 살아난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가 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는 죄로 인해 잃었던 영생을 다시 찾는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죄사함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죄사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신음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가 이 땅에서 아주 엄격하게 자신을 훈련하고 순수한 삶을 살지라도, 그에게는 그가 이 땅에서 살게 된 총괄적인 원인인 전에 하나님을 거절한 죄가 남아 있다.

이 죄 때문에 그의 의지가 연약해져, 그를 죄짓게 만들려는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에 대항할 수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가 전에 지은 죄로 인해 처한 깊은 위험과 연약한 의지를 알고,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렸다. 왜냐면 그는 사랑으로 충만했고, 사랑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사랑은 항상 구속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B.D. No. 7442

1959년 10월 31일

너희가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진지하게 받기 원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면, 너희 모두는 너희의 죄에 대한 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로 가지고 간 죄짐은 엄청나게 컸다. 왜냐면 내가 짊어진 죄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짐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인류가 범한 원죄였고 이 땅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행한 모든 죄였다.

나는 모든 죄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비록 죄가 아주 크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이 죄를 짊어졌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심장을 다시 주기를 원했고 그러면 너희가 단지 유일하게 깨끗한 심장 안에서 나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얼굴을 대면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너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기 원했다. 나는 너희를 짓누르는 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나로부터 떨어져 있게 만드는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구속사역을 통해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구속받으려는 의지를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나에게 구해야 한다. 왜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가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죄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항상 구속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게 다가와 너희의 구속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내 대적자가 영원한 기간 동안 너희를 묶어 두고 있는 연약함과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두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에게 충만해지고 너희 안의 사랑이 불이 붙어 밝은 화염으로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혀 사랑이 없는 자가 너희를 더 이상 자신의 권세 아래 두지 못한다. 자신이 사랑인 분이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 심장 안에 자신의 빛을 비춘다. 왜냐면 심장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었고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고 너희 심장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로부터 구속을 받으면, 너희는 그의 뜻에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사랑을 통해 나에게 성전으로 준비한 너희 심장 안에서 거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피할 수 없게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하고 받았어야만 한다. 진지하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일이 너희에게 전적인 용서를 보장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짐을 진 심장이 자신을 부르는 모든 부름을 듣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너희 요구를 성취시키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내 심장으로 끌어 드린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내 피를 흘린 구속받은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의 죄의 고백을 원한다. 고백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자신이 연약하고 불행한 피조물임을 알기 때문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나 자신이 그 안에서 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구속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자유가 없이 영의 어두움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은 아주 커서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원했고 자신 안에 거하는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그들에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죄를 해결하기 원했다. 그는 그의 사랑이 아주 커서 모든 사람이 단지 아버지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축복에 도달하게 돕기 원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게 했다. 죄는 나와 존재들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했다. 이 간격은 극복돼야만 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속사역과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간격을 극복했다.

그는 사람들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도달하게 도왔고 그는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모든 사람이 축복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너희가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하라.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너희는 깨끗함을 받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향하는 길과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보다 먼저 간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길을 열어준 것이다. 축복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아멘

구원에 필수적인 자유의지. (스스로 구원).

B.D. No. 1611a

1940년 9월 14일

자유의지의 덕택에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의지가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단지 약하고 무력하다. 은혜는 사람이 원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주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항상 보살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랑이 사람이 위험에 처한 모든 곳에 개입을 한다. 그의 혼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돕는다.

가장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은 기도이다. 기도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 혼의 모든 위험과 고난 속에서 거듭되는 항상 또 다시 힘과 도움을 받는 수단이다. 기도는 선한 영의 존재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선한 영의 존재가 가진 풍성한 힘을 기도로 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은혜를 측량할 수 없게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또다른 은혜의 수단은 사랑을 행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행하는 일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로 흐르게 하고, 이 은혜가 사람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단지 사랑을 통해 자신을 구원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행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다시 말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증가된 힘을 받을수록, 사람 안의 힘은 더욱 강해진다. 단지 어떤 형식만 성취키시는 사람에게는 힘이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 가장 깊은 심장이 그에게 기도하도록, 사랑을 행하도록 촉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단지 그에게 은혜를 전해줄 수 있다.

걱정과 질병과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게 만드는 형편에 처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도로 도움을 간청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 광선 안에 머물기를 원하게 되도록 사람들을 인도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을 그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의지의 집행자로서 마찬가지로 이 땅의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의 의지가 사랑을 행하는 일에 적극이 되고, 하나님께 그의 힘을 주기를 구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면 비로소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다.

아멘

은혜의 수단. 기도와 사랑행함.

B.D. No. 1611b

1940년 9월 14일

내면의 평화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제공받았을 때, 이 은혜를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사람들의 위를 향한 길은 아주 어렵게 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너무 부족하고, 비록 은혜가 그들에게 제공될지라도, 하나님께 어떤 힘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은혜의 수단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의 혼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에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 그들의 혼을 기억하도록 알려주면서, 은혜의 태양이 그들에게 비추게 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알게 되고, 경고를 받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또한 의식하지 못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주어지고, 사람이 단지 붙잡기만 하면 된다.

다시한번,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일은, 그에게 그토록 사랑스럽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은 인간의 자유의지이다. 일단 의지가 이런 은혜를 얻게되면, 그의 이 땅의 삶 동안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이런 은혜를 구하고, 이로써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의 삶 동안 자신을 구속할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혼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단지 그의 의지만이 필요하다.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구해야만 한다. 그의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하고, 그의 의지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와 연결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해 가기를 원한다. 이런 의지가 그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서나 그에게 다가 간다. 그는 사람에게 그가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에게 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도움의 수단을 제공하고, 존재에게 단지 이런 도움의 수단을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위를 향해 올라가는 일을 보장하는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드리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강요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뜻이 없이는 그에게 주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혼은 위로 향하도록 떠밀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완전한 자유의지로 위로 향하려는 갈망을 갖지 않고, 강제로 위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자신의 이 땅의 마지막 육신을 입는 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죄를 깨닫는 일. 의지의 행동.

B.D. No. 3280

1944년 10월 6일

의지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의지도 또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하고, 죄를 없애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만 한다. 그

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최악된 상태를 깨닫기 전까지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왜냐면 그에게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동안에는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랄 때, 사람은 비로소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깨달음이 자신의 불의를 깨닫게 하고, 그의 심장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때, 그가 사랑에 대항하여 죄를 범했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의 깊이에 따라 그는 이런 죄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그의 의지가 이전에 죄를 지었을 때 역사했던 것처럼 역사한다. 사람이 이 전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다. 즉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하 방향으로 역사하게 하고, 그러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면 죄를 해결하는 일에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항상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려는 의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에 더 이상 죄가 없고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무너졌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죽음을 이기고 대적자의 권세를 무너 드렸고, 사람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극도로 강하게 했고, 자신의 사랑을 통해 구속 역사를 완성했지만, 그러나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지가 자유롭게 자신의 역사를 인정하고 자신을 따를지를 정하게 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지가 일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의 축복과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도 제외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강제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사람 자신이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하고, 이런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에게 죄의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의 죄짐을 덜어주고, 자신의 이웃 사람과 그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용서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행한 사랑의 희생 제사를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후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한다면, 셀 수 없게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죄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절대로 속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활히 여기지 않았다면, 자신의 피로 그의 타오르는 사랑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한 자신의 사랑의 희생제사를 통해 사람들의 말할 수 없게 힘든 이 땅과 저세상의 고난을 피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의 마지막 죄가 사함을 받을 때까지 저세상에서도 또한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이를 인정하는 일이 선행조건이기 때문이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중되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 영원히 간섭을 하지 않고,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에게 향할지, 하나님께 향할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향할지 정해야만 한다.

아멘

이 반적인 구원은 없다. 항상 단지 각각의 사람의 구원이 이뤄지고 원래 초기에 온전했고 자신의 잘못으로 깊은 곳으로 타락했던 각각의 존재의 구원이 이뤄진다. 모든 각각의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원하고 추구해야만 한다. 존재 스스로 인간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기를 원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속하게 허용해야만 한다. 존재는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택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의 죄짐이 해결되고 존재에게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이 열려야 한다. 예수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두 인류를 위해 완성했고 어떤 사람도 구속사역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먼저 각각의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로써 구속사역이 그를 위해 행해진 것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향하지 않고 자신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구속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

그러나 단지 이런 구속사역인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만이 남김 없이 죄 용서를 받는데 필요했다면, 모든 인류가 구속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우주 가운데 어떠한 축복되지 못한 존재도 더 이상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존재들이 스스로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할지 또는 원하지 않을지 결정을 하지 못하면, 모든 존재들이 동시에 자신의 자유를 빼앗긴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각각의 존재들이 이런 결정을 스스로 해야만 한다. 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스스로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간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예수그리스도 구속의 관한 지식이 그에게 전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지식이 그의 생각과 의지에 영향을 미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에 한번 들어서면,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서 끝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죄짐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예수의 공해를 통해 죄짐을 벗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죄짐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린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에게 죄짐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가 가야 할 이 길을 면제해줄 수 없다. 어떤 사람도 그를 대신해 이 길을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본다. 그는 이런 의지에 합당하게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류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구속을 받았다는 생각은 잘못 된 생각이다. 어떤 존재도 언젠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는 일에 제외되지 않으면, 비로소 존재 자신이 구속받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존재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로써 인류는 실제 구속받지 못한 고통을 스스로 끝내고 일관되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향한 길을 일관되게 가야만 한다. 그들은 빈틈이 없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항상 단지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갈망하고 추구한다.

이런 동안에는 항상 단지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고 축복되게 머물 것이다. 왜냐면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축복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의지가 변화될 때까지 죄와 죽음 가운데 머문다.

아멘

사랑의 섬김을 통한 구원. 묶임은 받은 상태와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

B.D. No. 2084

1941년 9월 23일

어떤 존재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는 묶임을 받은 존재와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 있는 존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섬기는 일이 항상 자신의 곁형체를 벗어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존재가 더 자원하여 섬기는 일을 할수록, 그는 더 빠르게, 마지막 곁형체인 인간의 육체가 혼을 감싸게 될 때까지 곁형체를 바꿀 수 있다. 혼이 이제 마지막 곁형체를 벗어나 방해받지 않고, 짐이 없이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성취시켜야만 하는 과제는 다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혼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일이다. 바로 이런 일에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분주함과 추구하는 일 가운데 더 이상 이웃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실제의 과제를 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나치게 자신들이 중심에 서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들은 묶여있게 된다. 왜냐면 단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단계에서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섬기는 일을 정함 받는다. 그들은 어떤 의무의 상태에 있고,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도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섬기는 일을 하도록 강요를 받지 않게 되고, 그가 자유의지로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려는 동력이 심장 안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사랑이 불타 올라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비로소 그가 이웃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에게는 추진력이 없고, 그는 이 땅의 과제로 그에게 부여된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 모든 인류가 이로 인해 병이 든다.

사랑을 행하려면, 사람이 아직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정도에 따라,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의 불씨가 그의 심장 안에서 타오르면, 그는 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힘이고, 그러나 힘은 절대로 활동하지 않고 머물 수 없고, 항상 일하도록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랑은 항상 이웃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가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섬긴다. 이로써 그는 이전의 그의 죄짐을 벗어나게 된다. 왜냐면 그가 교만한 가운데 통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섬기는 일은 그에게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견뎌온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동시에 곁형체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로써 혼이 마지막 곁형체를 벗을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혼이 하나님을 향한 이전의 태도를 포기했고, 혼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사랑이 되었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완전히 극복했고, 이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영화되는 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변형이 이제 불필요하게 되고, 혼의 모든 부담이 제거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합은 단지 사랑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역사에 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을 목표로 세운 사람은 이미 사랑 안에 거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소원을 통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구원한 것이다.

아멘

사랑 없이는 구원이 없다. 생명의 힘.

B.D. No. 3165

1944년 6월 21일

구원은 단지 사랑의 길을 통해 가능하다. 이 법칙은 이 땅과 저세상 모두에 적용되고, 그러므로 모든 존재가 성취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존재가 영원히 묶임을 받은 가운데 머물게 된다. 구원받은 증거는 빛과 힘이다. 존재가 빛과 힘이 없이 산다면, 존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아직 자신의 원래의 자유를 되찾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전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원래 온전한 상태였던 존재에게 결함이 있는 상태는 또한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사랑 없음을 통해 야기된 고난과 고통의 상태를 의미한다. 존재는 단지 사랑을 통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절대로 제외시킬 수 없고, 말하자면 기본 원칙이 돼야만 한다. 이런 기본 원칙이 없이는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할 수 없게 성장과정에 방해를 받는다. 왜냐면 그러면 힘과 빛의 유입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일이 어둠 속에서 혼란스럽게 되고, 무기력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빛과 힘, 즉 지식과 권세가 구원받은 증거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존재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눠줄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는 저세상에서 사랑을 행할 수 없고, 이런 상태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그러나 존재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구원받은 증거로 존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존재에게 부여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은 그에게 흘러가는 생명력이고, 이 힘이 사람이 빛과 영적인 힘을 소유하기 위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특별한 은혜의 역사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실제로는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하여 자격이 없는 그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비록 힘을 받게 되는 일이 구원받은 존재에게 비로소 보장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존재에게 일할 힘을 준다. 이런 은혜의 역사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존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연약해진 존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을 받는다. 존재가 원래 가졌던, 자유하고, 깨달음이 있고, 권세가 있는 상태로 돌아 가기 위해, 존재는 단지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된다. 하나님은 존재에게 그가 벌어드리지 않은 생명을 주었고, 존재에게 힘을 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시 말해 존재가 자신에게 흐르는 생명력을 사랑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고, 이로써 자신을 구원하게 한다. 그러나 존재는 이런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존재는 계속하여 사랑이 없는 가운데 살고, 저세상에서 그가 빛과 힘을 얻게 해줄 그의 삶의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존재가 자신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모든 힘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존재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이런 성장과정을 전적으로 중단하거나, 계속하여 퇴보하지 않을 경우에, 존재가 저세상에서 성장하는 과정은 단지 아주 어려운 조건 아래 계속될 수 있다. 왜냐면 완전히 빛이 없고, 무기력한 존재에게 퇴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존재에게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은 존재 안에서 자유롭게 커져야 한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존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준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영원히 지속될지라도, 존재는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다. 왜냐면 높이 성장하는 일이 순수한 사랑 자체인 영원한 하나님을 닮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자유롭고, 빛과 힘이 충만하고, 하나님 곁에 거할 수 있게 되려면, 존재 안의 사랑을 확장 시켜야만 한다.

아멘

불쌍한 혼들을 위한 도움. 사랑이 구속한다.

B.D. No. 5203

1951년 9월 4일

혼 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돕는 모든 일이 저 세상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 혼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 베푸는 사랑이 유일하게 구원하는 수단이다. 이런 존재들이 이제 능력을 얻도록 돕는 모든 일은 내 축복을 받는다. 왜냐면 이 일은 사랑의 원칙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편에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 베푸는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땅에서 또는 저 세상에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어떤 사랑의 불씨도 능력이 없지 않고, 사랑의 역사는 항상 능력을 공급해주는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너희를 저 세상의 불쌍하고 전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움에 의존되어 있는 혼들을 생각하도록 인도한다면,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이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과 구속하는 역사를 하기 위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기뻐할 것이고, 이는 절대로 무익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단지 아주 적은 사랑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적은 수의 사람들이 저 세상의 혼들을 생각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신이 저 세상의 구속을 받지 못한 혼들과 능력이 없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고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혼들에게 아주 아프게 역사한다. 그들을 향한 모든 선한 생각과

그들의 행복을 위한 모든 사랑이 충만한 소원은 그들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고, 그들이 이를 감사하게 느낀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혼들에게 바로 이런 선하고 사랑이 충만한 생각이 적게 뒤따른다. 그러므로 이런 혼들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이 그의 도움을 받으려는 혼들로 둘러 싸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도움받기 원하는 그들 모두는 너희가 부탁하는 일을 느낄 수 있게하기를 원한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런 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기도와 사랑으로 생각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혼들이 이 땅에서 중보 기도자를 찾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능력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무리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혼들도 또한 너희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 그러면 너희의 사랑이 너희에게 지시하는 모든 일을 행하라. 단지 사랑하려는 의지가 그들을 돕도록 너희를 인도하면, 항상 내 축복이 너희에게 확실함을 알라. 단지 도움을 주는 일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많은 사슬을 풀어줄 수 있고, 너희는 고통을 당하는 혼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너희는 먼저 그들에게 힘을 제공하는 일로 돕는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 너희의 모범을 따라 이 힘을 활용하고, 또한 너희가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돕기를 원하게 된다.

비록 내 은혜와 긍휼이 어떠한 존재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지만, 그들이 너희의 도움에 의존되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강팍해진 심장이 사랑의 비추임으로 감동을 받아야만 한다. 나 자신이 저 세상에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 단지 하나의 자극이 필요한 혼들을 너희 사람들에게 인도한다. 그러나 사랑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아직 끝없이 긴 기간 동안 같은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위로 향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잊지 말라. 왜냐면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사랑 없음이 그들에게 주는 고통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돕기를 원하면, 나는 내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죽음의 밤으로부터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불행한 저 세상의 혼들에게 베푸는 너희의 사랑에 내가 저항할 수 없고, 나는 너희의 사랑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기를 구원하는 일. 사랑. 의지를 포기하는 일.

B.D. No. 1571

1940년 8월 17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존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비록 그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이 주어지고, 그가 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 가르침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일 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다른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의지가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존재가 반발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더 강하다고 믿는 동안에는, 그러므로 아직 대적하기를 원하는 동안에는, 형체를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 자신을 빛의 존재로 만드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의식적으로 자체가 영원한 사랑인 분에게 복종하는 일이다. 섬기는 사람은 항상 이웃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일을 행할 것이다. 그는 고난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이웃사람들의 운명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는 항상 이웃사람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랑의 역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를 항상 영원한 사랑 자체인 분과 연결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다른 어떤 권세도 공간을 차지하거나 권세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단지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사람은 다른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의미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더 나아가 또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도움을 주는 모든 일을 하면서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뜻에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의 이웃사람의 몸과 혼을 돌보고, 깊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의미한다. 다스리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가 섬기는 일은 자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섬기는 일을 하는 원동력이고, 이 사랑이 그에게 힘을 준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찬가지로 이 땅의 자녀를 붙잡고,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을 가지면서 이런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녀가 항상 더 즐겁게 섬길수록, 자녀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아멘

의지를 드리는 일이 유일한 요구 사항이다.

B.D. No. 2841

1943년 8월 7일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너희의 삶은 이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나의 의지에 순복시키는 일 외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너

희의 의지는 한때 교만으로 나를 떠났고, 결과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너희가 이제 다시 완전해지기 원하면, 즉 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면, 너희는 다시 나에게 돌이켜야만 한다. 너희는 내 의지를 인정해야만 하고,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바쳐야만 하고, 나와 같은 뜻을 가져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온전한 단계에서 나의 지혜와 사랑이 깨달은 것과 다르게 원하고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의지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대항하면 너희의 의지가 나의 사랑과 지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러면 너희는 나와 연합할 수 없고,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너희는 나에게 전적으로 너희 자신을 내어주고, 이로써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의지를 주고,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할 수 있고, 너희가 저항에 직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너희 안의 나의 역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더 이상 저항이 없는 곳에서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나의 힘을 부여줄 수 있고, 너희를 통해 나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드리면, 자유롭지 못하게 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고, 나의 지원으로 이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왜냐면 내 의지가 이제 너희의 의지가 되었고, 너희는 만족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완전히 드리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의 생각과 추구하는 일이 아직 세상을 향한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의 의지가 아직 나의 대적자에게 속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대적자의 나라를 떠나야만 하고,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게 만든 대적자를 경멸해야만 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이켜야만 한다. 이를 통해 너희가 나를 갈망하고, 나의 뜻대로 행할 자세가 되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제 너희를 인도할 수 있고, 너희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고, 나의 뜻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는 정상에 도달해야만 하고, 너희의 목표에 도달해야만 한다. 너희는 한때 너희의 상태였던, 항상 단지 나의 뜻을 성취시키고, 축복되었던 빛이 충만한 존재가 돼야만 한다. 왜냐면 내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 모든 존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B.D. No. 7489

1959년 12월 29일

너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주님은 너희 부름을 항상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 생각이 자기에게 향하길 기다리고 있고 너희 심장 안으로 그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려고 기다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추어 주기 위해 너희 심장이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생각을 나에게 향함으로써 심장을 연다. 모든 영의 생각은 너희와 빛의 나라가 연결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모든 영의 생각은 너희를 위해 언제든지 가장 가치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다. 왜냐하면 모든 연결은 비록 너희 육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너희 혼이 행복하게 느끼는 너희에게 빛과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작은 위험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를 통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그와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 많은 위험들은 항상 단지 너희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가 항상 어디서든지 자신을 생각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큰 축복을 체험하기 원하면, 너희의 연결은 아무리 긴밀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그와 함께 너희의 길을 갈 정도로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을 정도로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너희가 더 이상 홀로 가지 않고 너희의 이 땅의 길에 너희의 인도자가 되고 인도자로 남기 원하는 그의 지속적인 동행을 받으며 갈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의 안건이 작을지라도 그와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작은 안건들이 너희로 하여금 이 연결을 이루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와 영원히 영원이 연결되길 갈망하는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를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에게 자유의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한때 전적으로 속은 가운데 떠났던 분에게 다시 향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인 너희에게 이렇게 하게 강요할 수 없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세상과 세상의 자극을 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영원히 다시 얻기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그에게 향하는 모든 생각이 그에게 귀환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항상 더욱 진지하게 이 귀환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의 생각이 한때 너희를 생성되어 나오게 한 그에게 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으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고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강요하면서 이 길을 가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옛 관계를 다시 만드는 유일한 연결수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너희에게서 받길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방식으로 너희를 끌어드려, 너희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 비록 이런 일이 모든 종류의 위험을 통해 일어날지라도 그는 너희가 자신과 연결을 이루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연결은 아버지가 많은 종류로 증명해 줄 사랑 안에서 이뤄질 것이다. 이로써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사랑을 얻고 자녀를 영원히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생각을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라.

너희 삶은 곧 더욱 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어려움을 가진 이 땅의 삶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곧 단지 너희 이 땅의 과정을 마치면, 너희가 들어가게 될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영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다.

아멘

영적인 구함: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

B.D. No. 8063

1961년 12월 15일

내 충만함으로부터 너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손에 가득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단지 내가 너희에게 선물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면, 나는 내 선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진실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크다. 왜냐면 내가 너희 안에서 도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높은 것으로 성장하기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어린 아이를 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단지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너희에게 진실로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내가 이런 구함을 아주 기뻐하며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구함은 너희를 한때 창조되어 나오게 한 나에게 도달하려는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증명해주는 것이다.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악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다. 너희가 모든 겸손함으로 스스로 능력과 빛이고 너희에게 능력과 빛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너희는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이 너희에게 높은 것으로 성장한다는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 왜냐면 너희가 높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생명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적인 능력과 밝기를 구하면, 너희 자신이 너희의 연약한 상태를 깨달은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다. 나는 항상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있다. 나에게서 능력을 받기를 기대하는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할 필요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얻기 위해 나에게 부탁해야만 한다. 왜냐면 한때 너희는 내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

가 무능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저항을 받으면 효능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먼저 저항을 포기해야만 한다. 너희가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저항을 포기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너희가 부족한 사랑의 비추임을 연약한 상태로 느끼고 다시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선물해줄 수 있다. 너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나눠줄 것이다. 너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성공적으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길을 갈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의지의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너희 관점은 항상 단지 나에게 향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내 사랑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혼자서는 어떤 성공도 할 수 없음을 믿을 수 있다. 너희는 나와 내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내 크고 넘치는 사랑이 보장한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이 사랑을 요구해야만 한다. 너희가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고 은혜의 능력에 흐름에 너희 자신을 열어야만 한다. 너희가 한 때 나로부터 떠난 것처럼 너희 자신이 자유의지로 자신을 담은 것처럼 너희는 이제 자유의지로 다시 나에게로 다가와야만 한다.

너희의 기도는 진실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항상 나는 단지 자신을 선물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 사랑은 죽은 자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사랑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기 원한다. 사랑은 너희 자신을 자기에게 끌어 들인다.

사랑은 내가 너희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의지로 해야만 하는 너희들과 연합이 되길 구한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를 않는다. 너희는 충만하게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높은 곳을 향한 성장은 너희에게 쉽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삶을 너희는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 자신이 그리고 나와 연합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라는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의식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자신을 너희 아버지의 자녀로 느끼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버지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를 세운 것이다.

진실로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나와 연합이 된 상태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모든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는 내 올바른 자녀로서 이제 너희의 영원한 고향인 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인간의 연약해진 의지. 구속역사의 중요성.

B.D. No. 2779

1943년 6월 19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의 의지가 너무 약해져서, 저항력이 아주 적어, 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가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 왜냐면 대적자가 세상의 유혹을 사람에게 제시하고, 인간이 이제 자유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는 이 전에 끝없이 긴 기간 동안 묶여 있었다. 그의 본성에 합당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자유 의지가 이제 비로소 그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스스로 역사하게 한다. 그의 욕망들은 커지고, 그의 욕망은 이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향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한 것으로 향한다. 대적자는 이제 이미 하나님을 더 많이 대적하도록 영향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을 자신을 위해 다시 얻기 위해, 그런 것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대적자는 이런 미끼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도움으로 사람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이 땅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람의 의지를 약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컸고, 사람들의 의지가 너무 약해져, 이미 어떤 사람도 물질로부터,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은 이미 성숙한 영적인 존재들을 자신에게 묶으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세상을 다스렸다. 즉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대적자의 의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의 의지가 이제 대적자에게 저항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깨달았고,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도우려는 시도를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대적자의 역사에 저항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구매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재물로 드렸다. 이는 선물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벌어드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할지, 원하지 않을지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구속역사의 은혜를 약화시키거나 완전히 부인하면서, 사람들이 구속역사의 은혜를 활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위로부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공하는 일은,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해 또한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아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이로써 구속사역의 축복에 받게 하는 일을 쉽게 해주는 일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동시에 아주 효과적인 일이다. 인간의 의지는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

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려고 노력한다. 왜냐면 사람이 힘과 은혜가 없이는 대적자의 유혹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지 않다.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믿으면, 대적자에 의해 묶임을 받은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에게 구속사역의 모든 은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할 때 그는 저항할 힘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혼을 위협하는 모든 고난과 위험 속에서 그의 혼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을 것이다.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는 이 땅의 재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의 영은 빛나고 밝게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그의 사랑은 자랄 것이고, 이로써 그에게 항상 새로운 힘이 공급될 것이다. 구속사역의 은혜가 그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의 구원을 위해 그를 도울 것이다.

아멘

예수를 통한 의지의 강화와 능력의 제공.

B.D. No. 7762

1960년 12월 2일

나는 너희가 너희를 형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하기에는 너희 혼자의 힘이 너무 연약함을 너희가 항상 생각하게 해줘야만 한다. 너희는 초기에는 내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없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가 연약하게 머물고 너희에게 어떤 빛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향하게 할 능력이 너희 자신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먼저 강하게 돼야만 한다. 단지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은혜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때 나를 떠난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에게 받쳤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를 대적자로부터 구매하지 않았으면, 내 대적자는 절대도 스스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 자신이 원하면, 대적자는 너희에 대한 권리가 더 이상 없다. 너희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능력이 필요하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위해 강한 의지와 능력의 제공이 필요하다. 너희는 이런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해야만 하고 내 의지 아래 두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내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

내 뜻을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당시 너희의 상태는 빛과 능력의 상태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원래 상태를 나와 너희와의 관계를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영의 어두움 속에 사는 연약한 피조물이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에게 충만하게 제공되는 능력을 너희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으면, 너희는 절대로 이런 부족한 상태를 벗어나서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없고 너희는 절대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너희를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돕기 위해 너희의 무능력함을 해결하기 위해 너희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밝혀 주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원하면, 너희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를 위해 단지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단지 예수 안의 나에게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도움을 주기를 너희가 높은 곳으로 향할 때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해주기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모든 기도는 성취될 것이다.

구속사역을 믿는 가운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의 결과인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로써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나 자신을 다시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이런 구속역사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 자신을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린 분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만약에 너희가 그에게 향하는 길을 진실로 너희를 그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였을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남게 되었을 것이다.

아멘

“세상은 모든 죄에서 구속될 것이다.”

B.D. No. 1434

1940년 5월 24일

세상은 모든 죄에서 구속될 것이다. 주님이 한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구세주를 예고했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의식에서 구속을 약속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이 약속을 성취했다. 그러나 세상은, 즉 사람 자신은 이 구속과 관련하여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는 먼저 자신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는 구속 사역의 은혜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은혜는 긴밀한 기도를 통해 강하게 된, 모든 것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의지이다. 즉 실천할 수 있는 의지이다. 이전에는 의지가 이 권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단이 없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죄짐으로 인해 저항하기에는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적자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가 이 권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선 먼저 기도를 통해 의지가 강해지기를 구해야만 한다. 사람이

동시에 사랑의 존재로 자신을 형성해야만 한다. 이일은 단지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왜냐하면 단지 사랑을 통해 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속되기 원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서야만 한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인간은 위대한 긍휼의 역사를 시인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하고, 주님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스스로 원해야만 한다. 그는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께 그의 중보기도를 간청하는 사람은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 때문에 모든 죄짐이 해결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아들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모든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또한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구세주 자신이 그에게 제공하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을 구원한다. 그는 구속의 사역을 시인하고,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아주 큰 죄를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다. 그는 간청하면서 두 손을 들어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한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인류를 향한 구세주의 사랑의 역사의 규모는 인간이 하늘의 기쁨과 저세상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할 때, 즉 구속받은 상태와 묶임을 받는 상태를 상상할 때, 비로소 측량할 수 있고, 단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저세상의 혼들을 고통에서 살리기 위해 예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측량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주님의 구속 사역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논쟁을 벌이는 경우, 사람이 스스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속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자신을 제외시킨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의 선물을 주었고, 그가 이를 거절한다면, 저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닥치는 일은 그 자신의 잘못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존재도 구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지가 아주 오래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자신이 이 의지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의지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해결이 되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의지가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이 없이는 대적자의 권세가 너무 커서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자신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아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끄는 길은 단 하나이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문을 통해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간은 사랑과 고통의 길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은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을 구속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 죄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은 은혜가 그에게 전해져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는 단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충만함으로 구세주 안에서 거할 수 있기 위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냈음을 믿어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그가 구속 사역을 사람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역사로 깨닫고, 구속 사역의 축복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되면,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한 것이다.

예수는 말했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는 이 말을 사람으로써 말하지 않았고, 이 말을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수 자신이 순수한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 자체인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을 사랑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면,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성의 본질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이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서로 분리시키는 일은 깊은 믿음이 아니다. 그는 영원한 신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만든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규정하고 있다: "너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 자신이 사랑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신 길과 같은 길을 가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의 길에서 사랑을 나눠줘야만 한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랑의 역사를 통해, 영원한 신성을 자신에게 끌어드린다. 이로써 그는 영원한 신성과 연합한다. 그러면 예수가 말씀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는 마찬가지로 그의 큰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로써 그는 온전한 권리로 이 말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전적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영원한 신성인 아버지가 자신으로부터 나온 아들 안에 거했고, 영원히 더 이상 서로 분리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원초적 힘과의 연합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다. 구속역사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한 사람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역사였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랑도 없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연관관계를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하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의 신성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높은 곳을 향한 길은 결코 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왜

냐하면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이로써 영원히 멸망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구속사역의 영적인 이유를 아는 지식.

B.D. No. 7852

1961년 3월 16일

내 구속역사에 대해 너희가 어떤 자세를 가질지는 너희들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의지는 자유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사람도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이 길을 가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이 그에게 전해지게 돌볼 것이다.

그에게 향하는 길이 인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나에게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진리에 합당해야만 한다. 일어났던 일의 중요성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일을 단지 거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관찰해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깊은 영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 예수가 이 땅의 과정을 가게 된 가장 극심한 고난과 끝에 가서는 가장 고통이 큰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원인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이유가 너희에게 빛을 줄 것이고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를 인정하려는 의식적으로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게 너희의 의지를 정할 것이다.

이런 지식이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게 전해지면, 너희는 절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너희의 구세주로 그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가 순수한 진리를 위한 자세를 가지면, 단지 순수한 진리만이 너희에게 올바른 빛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내가 너희의 귀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너희가 예수에 관해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짐을 십자가로 가져 가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그에게 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한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내 대적자가 분노한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너희 안에 빛이 되는 것을 대항해 싸운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세주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 가운데 더욱 희미 해진다.

사람들은 그를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중요성을 모른다. 그들은 자주 예수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아무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모든 것을 부인하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 안의 나를 부인함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그는 너희 사람들에게 선명함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시키려고 한다. 그는 너희를 나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모든 지식과 모든 진리를 없애 버리려고 한다.

그는 너희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기 위해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원한다. 만약에 너희가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같은 의지를 가지면, 예수안의 나에게 너희를 돕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주시기를 구하면, 나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구속사역과 그의 의미를 알린다. 나는 너희에게 설명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영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왜냐면 단지 나만이 너희에게 올바른 빛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전해진 영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을 스스로 정하라고 권면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올바른 길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다른 어떤 길도 축복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수가 간 길을 가야만 한다. 너희는 그를 따라야만 한다. 그는 진실로 너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너희를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였을 때 나 자신이 그 안에서 거한 그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면, 너희는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피조물인 너희에게 내가 볼 수 있기 위해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나타낸 나에게 온다.

너희는 항상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라. 그러면 이 가르침은 너희를 나에게 향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단지 진리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통해 너희를 항상 자기에게 이끄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너희가 영원히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내 소유가 될 때까지 내 소유로 영원히 남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아멘